#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6년 11월 호)





〈사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국총동문회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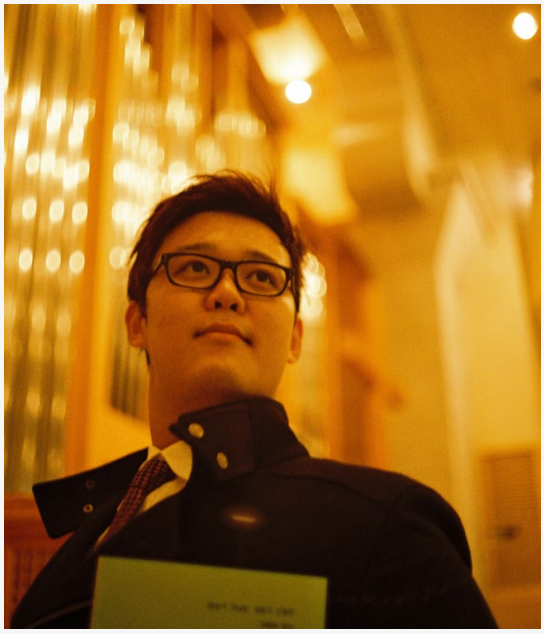



10월 16일(금) 오전 11시 · 불꽃교회

# 2026 클레어몬트 한국 동문회

사진 촬영·영상 편집: 지성서 목사
(목회학 박사 과정)

# 한국 동문회 참석에 대한 소감


〈사진: 지성서 목사, D.Min.재학중〉

저는 경기도 화성시 아름다운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지성서 목사입니다. 올해로 3년째 클레어몬트 한국 동문회의 사진 촬영과 영상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해마다 동문들의 만남을 기록하면서, 이 자리를 이어가는 분들의 정성과 서로를 반기는 마음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먼저 감사했던 것은 한국 동문회 임원들의 노고였습니다. 바쁜 일상과 사역 가운데 동문들에게 연락하고, 순서를 준비하며,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애쓰신 손길이 있었기에 반가운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모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공성훈 목사님과 불꽃교회의 따뜻한 환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신 자리 덕분에 편안하게 인사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공성훈 목사님과 불꽃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동문회는 M.Div., Ph.D., D.Min. 등 서로 다른 학위과정과 전공을 거친 동문들이 한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공부한 분야와 시기, 지금 서 있는 현장은 달라도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담으며, 함께 배운 인연이 시간이 지나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면서 모임에서 나누었던 인사와 웃음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카메라에 담긴 동문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더 많은 동문이 이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만이라 조금 망설여지는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소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동문들의 소중한 모습을 정성껏 기록하겠습니다.


부산 CBS 인터뷰
상처와 무력감 속에서
교회의 희망을 묻다
이경식 수석 부총장
영상 보기

# 영성과 지성으로 목회의 미래를 열다




〈사진: 지난 10월 19일 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이 주최한 ‘목회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식’이 지난 10월 19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빌딩 20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과정은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상호교육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목회자들의 신학적 전문성을 높이고 목회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예배에서 교육국 총무 김두범 목사는 ‘한 사람의 용기와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는 한 아이의 헌신을 강조하며, 목회자들이 믿음의 결단과 함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신학적 통찰력을 갖춘 목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히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이경식 부총장이 참석해 학사보고와 함께 수료자들을 격려했다. 이 부총장은 양 기관의 교육협력을 통해 한국 감리교 목회자들의 성장에 기여하게 된 것에 기쁨을 전하며, 앞으로도 목회 현장의 갈등과 치유, 변혁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교류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총 11명의 목회자가 과정을 수료했으며, 김용화 목사(목양교회)는 교육국총무상을 수상했다. 수료자는 이병희(로고스교회), 김혁교(카나다광림교회), 이규운(신나는교회), 최진모(돈암교회), 이규성(장양교회), 백두산(부광교회), 김연경(캄보디아 선교사), 김용화(목양교회), 인병재(어부들교회), 이주영(은평교회), 한태희(대관대교회) 목사다.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국 총무 김두범 목사와 목회교육정책부장 윤석호 목사의 수고 가운데 진행됐다. 앞으로 수료자들의 지속적인 학문 연구와 신학적 성찰이 목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처 입은 공동체를 치유하며, 교회의 건강한 변혁을 이끌어 가는 실천적 목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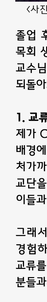



〈사진: ‘목회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식에서 교육국총무상을 수상한 김용화 목사(목양교회)〉

# 학위를 넘어 삶으로: 한 목회자의 10년, 살아 있는 신학
# CST D.Min. 졸업생 김광호 목사의 신학과 실천

CST의 목회학 박사(D.Min.) 과정은 단순히 학위를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회 현장에서 품어 온 질문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그 열매를 다시 현장으로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의 참된 결실은 졸업하는 날보다 졸업 이후의 목회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16년 CST D.Min. 과정을 졸업한 김광호 목사님(기장 부산중부교회, 한울 장애인 자활센터)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 줍니다. 장애인 성도가 많은 교회의 설교자로서 "나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연구는 '상호 의존의 신학'을 탐구하는 실천 연구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는 2016년 졸업식에서 총장 학술우수상(President's Award for Academic Excellence)을 받았으며, 이후 10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와 공동체 사역,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뒷받침하는 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졸업 10주년을 맞아 당시 지도교수였던 이경식 교수님(현 국제협력 수석 부총장)의 제안으로 작성된 이 회고를 통해, 10년 전의 신학적 질문이 오늘의 목회에서 어떻게 살아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CST 졸업 후 10년을 돌아봅니다. 김광호 (부산중부교회 목사)**


〈사진: 김광호 목사, D.Min.'16〉

**들어가며**

저는 기장 부산중부교회 목사이며 한울 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CST에서의 D.Min 과정은 2014년 5월 학기에 시작하여 2016년 5월에 졸업하였습니다. 논문 제목은 "A Theology of Interdependence as a Basis for Transforming Preach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입니다. 졸업한 지 10여 년 만인 지난 9월, 이경식 교수님이 부산중부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주일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졸업 후 목회 활동과 현 교회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CST에서의 공부가 저의 목회 생활 전반에 걸쳐 어떠한 변화를 끌어냈는지 정리해 볼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이 글은 교수님의 제안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CST에서의 학업 이후 저의 목회 여정 전반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글이 될 것입니다.

**1. 교류 지평과 경험의 확대**

제가 CST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장 교단 배경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고, 목사가 되어 목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심지어 처가까지도 한 교단의 목회자들과 중직자들로 이루어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교단을 성기는 대학 동기들도 만나지만, 40여 년이 넘도록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들과 주로 교류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타 교단 목회자들은 목회 현장에 대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 준 곳이 CST였고, 여기서 만난 분들과의 교류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리교, 예장통합, 침례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등 여러 분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매우 유익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둘째, 미국인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관계 설정 등 여러 면에서 새로운 점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참여한 수업의 모든 과정은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가 탄탄히 제공되었고, 학생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경청 후 이어지는 교수님의 피드백 역시 깊이가 있었습니다. 수업 이후에도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특히 신약 수업을 이끌어 주신 라일리 교수님의 경우,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매일 새벽 일어나 두세 시간씩 그날 가르칠 내용을 다시 살피고 수업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수업이 앞으로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책임감과 사명감이 크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세밀함이 느껴지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논문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피드백은 논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주제와 관련된 학자들과 자료들을 소개해 주심으로써 다양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는 제 논문을 진행하며 장애에 대해 왜곡되어 내장된 신학(embedded theology)을 꿰뚫어 분석하고, 이를 상호 의존의 신학이라는 의도적 신학(intentional theology)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 논문은 'The 2016 President's Award for Academic Excellence by a doctor of Ministry Graduate'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상호 의존의 신학이라는 큰 틀을 제게 세워준 목회적, 학문적 변화는 모두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지도 덕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의 설교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 성도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성서 해석과 접근부터 실제적인 설교 선포에 이르기까지, 상호 의존의 신학에 바탕을 둔 설교로의 전환이 저에게 일어난 가장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바탕은 교회 내 성도들과의 관계 형성, 장애인 자활센터에서의 활동, 나아가 시민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에 있어서도 아주 귀중한 삶의 자세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저를 '공적 신학(Public Theology)'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2. 사고의 확장과 체계화 (Organize)**

CST에서의 수업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업 계획서(Syllabus)를 전달받은 후, 수업 준비를 위한 여러 독서 과제와 과제물을 제시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의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수업 전에 학생으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해당 과목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저의 목회와 연관 지어 무엇을 성찰하고, 이 수업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기대를 품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캐티 블랙 교수님과 김혜란 교수님의 팀 티칭으로 진행된 'Healing and Transformation through Preaching and Worship' 과목이 그러했습니다. 이 수업을 준비하며 저를 가장 기대하게 만들었던 질문은 "장애인 성도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자인 나는 무엇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수업 전 제출한 과제물에 달린 세세한 논평은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캐티 블랙 교수님이 언급한 '상호 의존'에 대한 개념을 처음 마주하였고, 이 개념은 지금도 저의 신학적 사고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체계적인 수업 과정을 거치며 저는 크게 다섯 가지의 내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주체와 객체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는 '상호 의존성'의 굳건한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동안 목회 방향에서 간과했던 '교회 내 장애인 성도들과의 관계성'에 깊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혼합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만 하는지 깨닫었습니다. 넷째, 이러한 성찰의 결과물들을 정리하여 학위 논문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서 '상호 의존의 신학'이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세웠습니다.

해당 과목의 최종 과제는 개인이나 회중 전체의 치유와 변화를 돕기 위한 설교 제출(Submit a sermon designed to foster healing or transformation within individuals or the congregation as a whole)이었습니다.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구상했습니다. 본문 역시 질병과 장애의 문제를 다루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어떻게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 있는 우리 교회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서술했습니다.

이 수업 과정 중 저에게 꽤 큰 충격으로 다가온 과제도 있었습니다. 캐티 블랙 교수님은 팀을 이루어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예전(Liturgy)을 작성해 보라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평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던 분야이긴 했으나, 신학적·신앙적으로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친 과제라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기점으로 성서적, 신학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준비하게 되었고, 훗날 실제로 교회를 찾아온 성소수자 성도를 거리낌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목회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강남순 교수님과의 수업에서는 '개념과 단어 사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며 설교 준비나 대화, 신학적 표현을 할 때 무심코 가볍게 여기던 부분들을 항상 먼저 점검하게 해주는 귀중한 훈련이었습니다. 정확한 개념 사용과 표현을 사전에 살피도록 훈련받은 덕분에, 목회적 접근과 소통에 있어서 더 올바르고 정교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수업 후 교수님과 함께〉

**나가며**

글을 쓰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처음 이경식 교수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변화가 제 안에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CST에서의 과정이 저의 '사고의 체계화(Organize)'를 탄탄하게 다져 주었고, 이 내적인 변화가 지난 10여 년간 저의 목회와 설교, 대외 활동을 지탱하는 흔들림 없는 근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글을 마치며 CST에서의 두 장면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논문 지도교수님은 이경식 교수님이셨습니다. 처음 논문을 준비할 때, 저는 2014년 5월에 시작한 과정을 2016년 5월에 모두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이토록 짧은 기간 안에 논문을 마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은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해보자"는 암묵적인 긍정과 지지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정리하던 무렵, 이경식 교수님과 대전역 커피숍에서 만났던 날이 떠오릅니다.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아 무려 3시간여에 걸쳐 논문을 한 페이지씩 넘기며 세밀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학문적 열정과 제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깊은 감동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감동을 가슴에 품은 목사는 힘을 얻어 오늘도 묵묵히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 들리지 않던 목소리에서 목회의 길을 찾다
# CST 한인 목회학 박사 3명 구술시험 통과

CST에서 2026년 12월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한인 학생 3명이 2026년 10월 구술시험을 통과했다. 세 연구자는 회중의 예배 경험, 이주민의 예전 색채 경험, 유산을 겪은 여성의 상실과 애도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었지만, 교회 안에서 충분히 들리지 않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서 목회의 방향을 찾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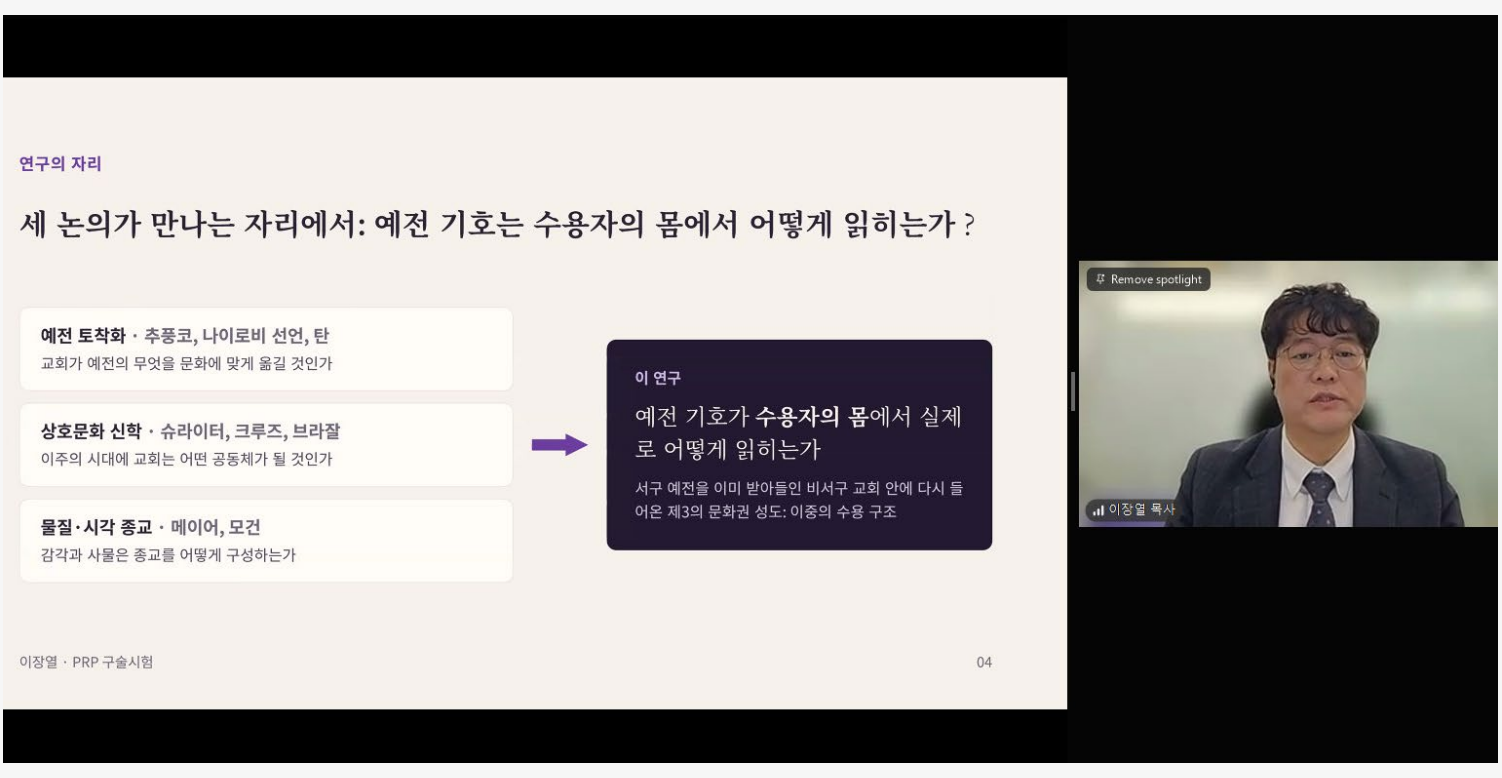






〈사진: 지성서 목사의 구술시험 현장 〉

**지성서 목사(D.Min.):**
지성서 목사는 회중의 참여와 몰입을 위해 기획된 예배가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아름다운교회와 하늘샘교회의 질적 비교 사례연구로 살폈다. 몰입이론, 포스트콜로니얼 관점, 상호의존과 환대의 신학으로 결과를 해석하여, 회중의 몰입이 기획자의 기법보다 경청과 환대의 관계에서 깊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그의 연구는 예배 기획을 “회중 이해, 기획, 실행, 경험, 피드백, 재기획”의 순환적 실천으로 제안하며, 기획 의도와 회중 경험을 함께 살피는 새로운 예배 평가의 길을 제시했다.







〈사진: 이장열 목사의 구술시험 현장 〉

**이장열 목사(D.Min.):**
이장열 목사는 한국 감리교회 주일예배의 예전 색채가 40대 베트남 이주 여성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현상학과 기호학, 혼종성 이론, 웨슬리의 성례전 신학으로 연구했다. 같은 색이 참여자에 따라 따뜻함과 믿음으로, 또는 장례와 슬픔으로 읽힌다는 점을 밝히고, 시각적 환대, 기호학적 번역자로서의 목회자, 제3의 시각 공간을 제안했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예배 기획위원회와 부활절 예배 공간 모델로 이를 실천하며, 다문화 시대의 교회가 예배의 의미를 함께 만들어 가는 길을 제시했다.




〈사진: 안준호 목사의 구술시험 현장 〉

**안준호 목사(D.Min.):**
안준호 목사는 임신 초기 자연유산을 경험한 30대 기혼 기독교 여성들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했다. 말하지 못한 슬픔과 자기 돌봄의 부재, 위로이자 부담이 된 신앙 경험을 아이리스 매리언 영의 억압 개념, 박탈된 애도의 관점, 환대와 상호의존성의 신학으로 해석하며, 슬픔을 서둘러 설명하기보다 먼저 듣고 함께 머무는 관계적 돌봄을 강조했다. 그의 연구는 목회적 자가성찰 질문, 가족 중심의 애도 예식, 교회 교육안을 제안하며 침묵 속의 상실을 공동체가 함께 품는 방향을 제시했다.

예배를 회중과 함께 만들고, 다른 문화의 성도와 예배의 의미를 함께 세우며, 말하지 못한 슬픔을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일은 오늘의 한국 교회가 마주한 과제이다. 세 연구자의 연구는 예배 기획 모델, 이중 언어 교재, 애도 예식과 교육안처럼 현장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실천 자료를 남겼다는 점에서 교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세 목사는 12월 중순 학위를 취득하며, 졸업식은 2027년 5월 18일(화) LA에 위치한 본교 웨스트우드 메인 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3년 5월 첫 5명의 한국어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가 배출된 이래, CST는 이번 졸업으로 모두 104명의 박사를 한국 교회에 보내게 되었다. CST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동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연구와 실천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 D.Min. 신입생 소개 | 양제신 목사



〈사진: 양제신 목사〉

주님 주시는 평강이 늘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7 Winter 학기부터 Intensive D. Min. 과정을 시작하게 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양제신 목사라고 합니다. 어느덧 NSO 과정을 마치고 내년 1월에 시작될 세미나의 과제들을 시작하려고 하니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이제 본격적으로 CST에서의 생활이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에 선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2025년도에 입학을 준비하다 여러 사정상 입학을 일 년을 미루게 되었고, 이번에도 입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더 미루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코스웍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의 CST 출신 선배, 동료, 후배 목사님들을 통해 CST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4년 11월, 당시 제가 소속되어 있던 광주노회 교역자부와 빛고을 평화포럼,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공동 주관으로 김남중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했었습니다. 주제였던 '성만찬과 예배'에 관한 특강을 듣고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면서 동시에 'CST에서 공부하면 앞으로의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창조 섭리이듯 우리도 서로 서로, 더불어 힘이 되어주며 이 여정을 잘 지나길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D.Min. 신입생 소개 | 윤성현 목사



〈사진: 윤성현 목사〉

안녕하세요. 2027년 겨울학기에 입학하게 된 윤성현 목사입니다. 저는 사역하며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적 갈등과 고민들을 마주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선배 목사님의 소개로 CST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을 알게 되었고, 기도와 고민 끝에 이번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와 목회자 모두가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세우도록 도우며, 현장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목회적 돌봄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곡된 수치심, 과도한 자책 등, 내면의 상처에서 비롯되는 갈등에서 벗어나 치유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도록 변화되는 실천적인 목회 대안을 이곳 CST에서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CST에서 이뤄지는 모든 학업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신학적으로 잘 정돈하여 교회와 목회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목회자로 성숙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언제나 겸손한 태도와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배우고,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Min. 신입생 소개 | 이상운 목사



〈사진: 이상운 목사〉

안녕하세요. 빛가온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 2027년 CST D.Min 과정을 시작하게 된 이상운 목사입니다.

주어진 사역만 하다 보니 지금 제가 서 있는 교회의 현장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 속 교회에 대해 늘 혼자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기보다 끌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고, 그것이 위기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시선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학문, 생각들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고, 이제는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느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이 바쁜 일상에서 '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Min. 신입생 소개 | 이종빈 목사



〈사진: 이종빈 목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종빈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Doctor of Ministry in Practical Theology of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에 입학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삶의 여러 순간을 동행하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이자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신앙의 자리를 지켜 오신 어르신들을 만나고, 질병과 상실을 경험하는 가정들을 심방하며 한 가지 질문을 자주 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쁨과 성장의 순간뿐 아니라, 연약함과 고통,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령화와 세대 간 거리, 공동체의 약화와 신앙 전승의 어려움은 단순히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목회적 전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가 다시금 서로의 삶을 돌보고, 세대를 넘어 믿음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박사과정을 통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해 온 질문들을 실천신학적으로 깊이 성찰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치유, 세대 간 동행,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목회적 경험을 학문적 연구와 연결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을 다시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 배움의 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누군가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에게 배움의 동반자가 되고, 건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함께 예배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CST에서 교수님들과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 배우고 나누며, 제게 맡겨진 목회의 자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배움이 개인적인 학위 취득에 머무르지 않고, 제가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열매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로운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공부하게 될 모든 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D.Min. 신입생 소개 | 최태진 목사



〈사진: 최태진 목사〉

안녕하세요.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인천서지방 영종중앙교회에서 청년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태진 목사입니다. 2027년부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실천신학 목회학박사(D.Min.)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경기연회 안산서지방 금메달교회)에서 7년 동안 담임목사로 섬겼고, 이제 부교역자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이끄는 자리와 동역자들과 협력하며 섬기는 자리를 모두 경험한 것은 제 목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재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며, 제자 양육과 선교 훈련을 통해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역이 성장하는 만큼 저 자신과 청년들도 예배자로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며, 예배에서 드린 고백이 일상의 선택과 관계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의 목회 경험을 신학적으로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더 깊이 준비한다는 점에서, 이번 목회학박사 과정은 제게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CST에서는 예배와 설교가 청년들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세워 갈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들과 동료 목회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배운 것을 현장에 적용해 가겠습니다.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며,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그 배움을 공동체와 나누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6-2027 기부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 -

**Donor Name**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이경식 부총장
윌셔연합감리교회
LA연합감리교회
T. Y. Suhr 서태원 기념 장학금
(서동영 장로)

보라매열린교회 (육성수 담임목사)
정동제일교회

| | |
|---|---|
| **기부총액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1월 5일 기준)** | **$33,132** |
| KEF 잔액(1990.03 - 2026.11): | $2,611,654 |
| KLS 잔액(2018.10 - 2026.11): | $896,615 |
| General Fund(2024.03 - 2026.11): | $13,728 |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